

| 국제동향 |

# 『2019 아시아 사회적 대화』 아시아 14개국, 사회적 대화 발전 방안 모색

손옥이 국제협력 전문위원



개회식 기념촬영

아시아 주요 14개국 사회적 대화 기구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별 과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2019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이 서울에서 개최됐다.

11.12.(화)~13.(수)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한국, 중

국, 러시아, 인도, 베트남 등 14개국 노사정 대표단(노총, 경총, 노동부, 경제사회위원회)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레나(Francisco Gonzales De Lena)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사무총장, Eurofound 웰츠(Christian Welz) 선임연구원, 오쿠무라(Yuka Okumura) ILO 거버넌스 삼자주의국 전문위원 등 국제기구 관계자 및 국내 사회적 대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구분	참석국 및 인원																								
아시아 등 참석국 (13개국, 25명)	1) 아시아																								
	<table border="1"> <thead> <tr> <th>중국</th> <th>러시아</th> <th>베트남</th> <th>몽골</th> <th>스리랑카</th> <th>인도</th> </tr> </thead> <tbody> <tr> <td>4</td> <td>3</td> <td>1</td> <td>2</td> <td>2</td> <td>1</td> </tr> <tr> <th>라오스</th> <th>미얀마</th> <th>말레이시아</th> <th>인도네시아</th> <th>캄보디아</th> <th>방글라데시</th> </tr> <tr> <td>2</td> <td>1</td> <td>2</td> <td>1</td> <td>3</td> <td>1</td> </tr> </tbody> </table>	중국	러시아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인도	4	3	1	2	2	1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2	1	2	1	3	1
	중국	러시아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인도																			
	4	3	1	2	2	1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2	1	2	1	3	1																				
2) 아프리카 AICESIS 회원국(알제리 2명)																									
* 한국 포함 총 14개국 참가																									
AICESIS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CESIS 의장국 경제사회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및 수행단(코트디부아르 3명)</li> <li>■ AICESIS 사무총장(스페인 1명)</li> </ul>																								
ILO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네바 본부 거버넌스-삼자주의국 전문위원(오쿠무라)</li> <li>■ 아태지역사무소 전문위원(윤영모)</li> </ul>																								
유럽전문가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로파운드(Eurofound) 선임연구원(웰츠)</li> </ul>																								

### 〈개회식〉

문성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압축된 경제성장 과정에서 잉태된 양극화의 문제와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과제 등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아시아 각국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넘어, 과제 해결을 위한 ‘필연’의 책임감과 사회적 대화로 풀 수 있다는 ‘가능’의 의지를 확인하는



개회식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아시아 국가는 수많은 도전을 함께 마주하고 있는 운명공동체가 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하향 경쟁’이 아닌, 균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세계 최대의 공장이자, 시장인 아시아의 발전에 최근 성장둔화와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과거 한국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사회적 대화 주체들의 공동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디비(Koffi Charles DIBY)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의장도 서면 축사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그리고 수용 가능한 해법을 모색 하는 데 있어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다”며, “이번 포럼의 논의가 아시아와 관련된 논의지만, 그 영향력은 세계 각국에도 의미 있게 파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 〈기조강연〉

레나(Francisco Gonzales De Lena)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사무총장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경제 효율성과 사회적 통합의 측면에서 짚었다.

레나 총장은 “사회적 대화는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균형기제로서 사회 통합적 연결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그 가치가 상당하다”며, “사회적 대화의 전통적인(초기) 이슈는 근로조건, 고용, 노사관계 시스템 관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의 ‘전환’ 관리, 평등,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 등으로 진화한다”고 말했다.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아시아 각국의 산업화에 따른 노동관련 제도



기조강연(레나 사무총장)

구축과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이 부원장은 “노동시장 제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고 파트너들의 개입을 기반으로 한다”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대항력 지원, 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제도의 선택을 사회적 대화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시아 각국은 이를 상호 벤치마킹하는 것이 매우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아시아 사회적 대화의 사례 발표〉

이어서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각각 자국의 사회적 대화기구의 특성과 운영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아시아 각국은 나라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노사정을 기본 참여주체로 최저임금, ILO 협약 비준, 양성평등, 양질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의 노사관계 등을 주제로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은 최근 중국 내 다자 간 협력 및 정치적 협의의 핵심 기구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산하에 경제사회위원회(CESC)를 발족해 중국 정치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주요한 기관이자, 거버넌스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 〈사회적 대화 전략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발제〉

웰츠(Christian WELZ) 유로파운드 선임연구원은 “유럽의 사회적 대화는 중앙은 물론, 전체 산업별, 산업 간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중앙-산업-기업 간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있다”고 소개했다.

윤영모 ILO 아태사무소 전문가는 “현재 사회적 대화는 ILO 187개 회원국의 85%인 161개국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아시아 사회적 대화의 성공 조건으로 ‘낮은 노사 조 직률 개선’,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확대’, ‘기업별 교섭체계의 극복’을 들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용성을 달성하는 데는 이상주의적으로 3가지 방식이 있는데, 국가 중심, 시장 중심, 그 다음에 코포라티즘이 있으며, 코포라티즘적인 방식은 바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사회적인 주체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2018년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에서 ILO의 제안을 계기로 추진됐다.

ILO는 한국이 아시아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나라로서, 아시아 사회적 대화의 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를 제안했고, 이에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노사정기구연합의 지지를 받아 이번 포럼 개최가 결정된 바 있다. 2008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바 있는 포럼은 이번이 두 번째다.

### 〈양자면담〉

포럼 기간 동안 문성현 위원장은 이번 포럼에 참석한 인도, 몽골, 알제리, 중국, 라오스 대표단 및 유로파운드 선임연구원과 면담을 가졌다.



양자면담-유로파운드

(전)연방 고용노동부 미트라(Mitra) 특별보좌관과의 면담에서 문 위원장은 “인도는 한국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가로 사회적 대화 분야에서는 양극화와 4차 산업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양 국가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중국경제사회위원회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문 위원장은 “아시아 국가 중 중국과 한국은 사회적 대화를 제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양국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아시아 사회적 대화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로파운드 웰츠(Welz)선임연구원은 “유럽 외 지역에서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 아시아 사회적 대화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 고조되었고, Eurofound에서 한국의 삼자주의, 사회적 대화,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선언문 채택〉

이번 포럼은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2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각국 대표단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양극화 해소·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회적 대화의 경험을 나누기 위한 방안’으로 포럼 정례화’를 위해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선언문 낭독

### 〈양해각서 체결〉

한편, 경사노위는 11.13. 오후 아프리카 국가와는 처음으로 코트디부아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본 행사에는 주한 코트디부아르 대사도 참석했다.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신임 의장국인 코트디부아르 경제사회환경문화위원회(ESECC) 대표단은 아시아의 사회적 대화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와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한 바 있다.

양해각서는 사회적 대화 분야 경험과 사례를 교환하고 상호 간 역량을 강화하며 회의, 세미나, 개최 등 참석·공동 출판과 협력과제의 공동 개발 및 수행을 내용으로 담았다.



폐회식

### ‘2019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 선언문

세계는 서로 열려 있고 연결되어 있다.

열린 세계에서 서로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필요로 한다.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아시아라는 공동의 공간에서 함께 살아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종교와 문화를 교류해 왔고, 근대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을 서로 나누어 왔다. 최근 급변하는 세계 정세는 더욱 긴밀한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의 무한한 경쟁, 실업과 불안정 고용, 빈곤과 양극화, 노사 갈등, 디지털 기술 전환에

따른 노동의 위기, 이에 대한 노사의 주체적 주동적 책임과 정부의 적극적 역할 등은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과제들이다. 우리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UN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인식하며 노와 사,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왔고 소중한 경험들을 축적해 왔다.

우리는 이번 서울에서 개최된 '2019년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을 통해 국제노동기구(LO),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유로파운드(EuroFound) 등 국제기구와 함께 각 나라들의 성과와 과제를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나아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경 간 또는 대륙별 차원의 사회적 대화는 더욱 필요하고, 효율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적 대화기구와 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첫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고 양극화 해소,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고용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아시아 국가들이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내에서 활동을 포함하여 대륙별 및 전 대륙을 아울러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각 나라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국제노동기구, 국제노사정기구연합과 함께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의 정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19. 11. 13.